

현대건축의 이론과 실천에 관한 소고

Theory and Practice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김 현 섭 / 정회원, 고려대 건축학과 부교수
Kim, Hyon-Sob / Associate Professor, Korea University
archistory@korea.ac.kr

건축에서 '이론(theory)'이라는 말과 함께 수반되는 개념들을 먼저 생각해 보자. 이는 두 가지 범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이론의 반대편에 놓인 '실천(practice)', 혹은 '실무'라는 개념이다. (우리 건축계에서는 현장에서의 건축행위에 '실천'이라는 말보다 더 직접적인 '실무'라는 말을 통용하므로 본고는 둘을 등가로 여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일찌감치 이론과 실천이라는 말, 즉 '테오리아(Θεωρία: theoria)'와 '프락시스(πράξις: praxis)'를 대비하여 사용했다. 기원전 6세기의 피타고라스가 올림포스 경기의 구경꾼을 운동선수와는 다른 (더 높은) 부류로 구분한 것은 그 단초다. 여기서 관람자는 상황을 분석하는 사상가를 의미하는데, '구경한다'는 말은 헬라어의 '테오리아'가 갖는 뜻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다.¹⁾ 구경을 위해서는 경기가 있어야 했고, 경기는 구경을 전제로 했다. 이론과 실천의 관계도 닮아있다. 어떤 행위나 현상을 추상하면 이론이 발견되며, 또 가시적이든 비가시적이든 나름의 틀이나 관점, 즉 이론에 따라 우리는 실천한다. 건축에서도 다르지 않다. 둘째, 이론-실천의 대립항과는 반대로 건축에서 이론은 대개 '역사(history)' 및 '비평(criticism)'을 매우 가까운 거리에 두고 동반한다. 다시 말해, 보통 '역사-이론-비평'을 한 부류로 묶어 큰 범주의 이론으로 여기며 건축 실무와 대치시키는 것이다. 케이트 네스빗(1996)은 이 세 가지 영역이 크게 겹쳐짐을 인정한 위에, 공통점을 넘어선 이들 사이의 차이점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전통적인 역사가 어떤 현상의 사실관계에 '서술적(descriptive)'이라면, 이론은 '규정적이거나, 금지적이거나, 확언적이거나, 비판적인(prescriptive, proscriptive, affirmative, or

critical)' 한편, 비평은 평자의 기준에 근거한 '판단과 해석의 한정된 활동'이다.²⁾ 그런데 실천과 대비되는 이론이라는 큰 범주 내에서도 다시 실천의 영역을 추출할 수 있다. 비평은 위 정의에서 이미 '활동(activity)'이라는 적극적 실천임이 자명해졌다. 그리고 역사 역시 '역사서술(historiography)'이라는 '행위(doing)'와 함께 함을 생각할 때, 마찬가지로 실천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역사와 실무의 결탁을 경계하고 비판했던 타푸리의 견해와 결코 배치되지 않는 다른 각도의 구도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논의 전개에 편의상, 큰 이론 범주 속의 실천항이라 할 수 있는 역사와 비평을 중개념의 역사로 다시 지칭하자. 이러한 열개 하에 이 글은 현대건축의 실무와 역사는 실천 영역 가운데 점점 더 지대해지고 있는 이론의 역할을 간략히 개괄해보고자 한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법한 역사의 부분에 대해 먼저 논하도록 하겠다.

이론화된 역사 Theorised History

건축역사의 역사가 길지 않음을 감안하더라도, 최근에 들어서야 건축역사에 이론이 도입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다지 정확하진 않아 보인다. (테이빗 와트킨(1980)이 건축사 서술이 발흥하기 시작한 18세기 이래부터 20세기 전반까지의 양상을 보여줬듯³⁾ 각각의 저자들은 나름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19세기 중반부터는 예술사학의 방법론에 기댄 건축역사서가 출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방법론이

1) 새뮤얼 이녹 스템프 & 제임스 피저, 『소크라테스에서 포스트모더니즘까지』, 이광래 역, 열린책들, 2004, p. 30. (원저: Samuel Enoch Stumpf and James Fieser, *Socrates to Sartre and Beyond: a history of philosophy*, 7th ed, McGraw-Hill, 2003)

2) Kate Nesbitt (ed), *Theorizing A New Agenda For Architecture: An Anthology of Architectural Theory 1965-1995*,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New York, 1996, pp. 16-17.

3) David Watkin, *The Rise of Architectural History*, Architectural Press, London, 1980.

의심되기 시작한 것은 아직 반세기가 채 되지 않았고, 본격적 연구대상이 된 것도 이제 겨우 한세대가 지났을 뿐이다. 이런 상황의 시발점이 된 것은 만프레도 타푸리(1935~94)의 『건축의 이론과 역사』(*Teoria e storia dell'architettura*, 1968; *Theories and History of Architecture*, 1980)라 하겠는데, 주지하듯 그는 이 책에서 지그프리트 기디온이나 브루노 제비를 위시한 대부분의 건축사가들의 '작동적 비평(critica operativa: operative criticism)'을 비판했다.⁴⁾ 여기서 '작동적'이라 함은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미리 계획하는 도구적 견해를 뜻한다. 역사의 신화를 벗겨낸 그의 입장은 이후의 저술로도 이어지며 건축 이데올로기 비평의 중요한 시금석이 되었고, 현재까지도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데미트리 포피리오스가 편집한 『On the Methodology of Architectural History』(1981)는 헤겔의 예술사론으로부터 타푸리의 입장에 이르기까지, 16명의 근현대 예술사와 건축사가의 방법론에 관한 전문가들의 논고를 한권으로 묶어냈다는 데에 의의가 크다.⁵⁾ 이제 건축사 자체가 아니라 그 역사의 이론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파나요티스 투르니키오티스(1999)나 안소니 비들러(2008)가 근대건축의 역사 서술론을 진지하게 고찰할 수 있게 된 것도⁶⁾ 이러한 배경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축역사에 이론이 필요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곤 한다. 건축역사와 '비판이론'이 교차된 '비판적 역사'를 강조한 이안 보든과 제인 렌델(2000)은 그 극단의 의견을 들춰내고 있다. (이들은 여기서 '비판이론'이라는 개념에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이론을 뛰어넘어 페미니즘, 막시즘, 정신분석학 등 모든 '자기성찰의 해방적 이론'을 포함하며, 역사학, 문화학, 지리학, 사회학 등의 다양한 이론적 학문분과 역시 포괄하려 한다. 한편, '비판적 역사'라는 용어에서 프랑크푸르트학파에 영향을 받은 케네스 프람턴을 의식하지만, 그 역시 텍스트가 '스스로 말하게 한다'는 개념을 노출했음을 지적한다.) 1993년의 한 건축사학 컨퍼런스에서 캠브리지대학의 드보라 하워드가 '좋은 역사는 방법론을 필요치 않는다는 '고답적(antiquarian)' 입장을 견지했던 것이나 가

빈 스타프가 건축이론 가운데 차용되는 탈구조주의를 '부적절한 마스터베이션'으로 치부한 것이 그 예다.⁷⁾ 인접 학문에 비해 다소 고립된 듯 보이는 일반 역사학의 분야에서도 '역사가들의 이론 혐오증'은 거세게 반박되곤 했다.⁸⁾ 그러나 학문의 경계가 무너지고, 기성의 권위가 힘을 쓰지 못하며, 도구화돼버린 역사의 속성이 노출된 작금의 포스트모던한 상황을 고려해볼 때, 건축역사의 범주에 성을 쌓고 이론의 침투를 막고자 하는 일은 이미 철지난 역부족의 싸움이 된 것 같다. 헤겔의 말처럼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철학을 품고 있다면⁹⁾ 역사가의 고상한 작업이야 말해서 무엇하랴. 키스 젠킨스(1991)는 '모든 역사는 이론적'이라고 단언한다.¹⁰⁾ 그렇다고 역사가들이 모두 최신의 이론으로 무장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문제는 역사가가 자신의 이론적 입장을 파악하고 이것이 사회와 '역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인식하는 일일 것이다. 다시 보든과 렌델의 논점으로 돌아가 보자. 그들이 주장하는 '비판적이고 이론화된 건축역사(a critical, theorised architectural history)'는 타푸리의 '변증법적 역사'가 지닌 '지적 에너지의 강렬함과 역사적 지식의 잠정적 속성'을 공유하면서도,¹¹⁾ 그의 비판적 견해 대신 넘쳐흐르는 인간의 창조력이 지닌 변혁의 가능성에 여전히 희망을 두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는 비평의 한 형태이기도 하다.

이론적 실무 Theoretical Practice

이론화된 역사의 양상을 먼저 살폈지만 역사가 이론적이라는 말보다 실무가 이론적이라는 말이 더 강한 논점을 제시하는 것 같다. 서두에서 이미 언급했듯, 역사-이론 사이의 거리보다 실무-이론 사이의 거리가 훨씬 멀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실무와 관련한 이론이라면 일차적으로 계획학적 각론이나 법규, 구조, 시공 등 실질적 수준의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4) 김일현의 한국어본은 이를 '실무적 비평'으로 옮겼으나, 본고는 'practice'를 '실무'로 번역한 것과 혼동을 피하기 위해 '작동적으로' 옮긴다. 만프레도 타푸리, 『건축의 이론과 역사』, 김일현 역, 동녘, 2009.

5) Demetri Porphyrios (ed), *On the Methodology of Architectural History*, Architectural Design, London, 1981.

6) Panayotis Tournikiotis, *The Historiography of Modern Architecture*, MIT Press, Cambridge MA, 1999; & Anthony Vidler, *Histories of the Immediate Present: Inventing Architectural Modernism*, MIT Press, Cambridge MA, 2008.

7) Iain Borden and Jane Rendell, 'From chamber to transformer: epistemological challenges and tendencies in the intersection of architectural histories and critical theories', in Borden and Rendell (ed), *InterSections: Architectural Histories and Critical Theories*, Routledge, London, 2000, pp. 3-23.

8) 키스 젠킨스,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 최용찬 역, 해안, 1999, p. 155. (원저: Keith Jenkins, *Re-thinking History*, Routledge, London, 1991)

9) G.W.F. Hegel, *Hegel's Aesthetics: A Critical Exposition*, trans. J.S. Kedney, Chicago, 1885, pp. 163-164.

10) 키스 젠킨스, 앞의 책, p. 188.

11) 타푸리에 대한 '변증법적 역사(dialectical history)'라는 용어와 개념에 대해 보든과 렌델은 프레드릭 제임슨을 참조한다. Fredric Jameson, 'Architecture and the Critique of Ideology', in Joan Ockman (ed), *Architecture Criticism Ideology*,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Princeton, 1985, pp. 51-87.

‘실무적 이론(practical theory)’이라 칭할만하다. 그러나 본 고가 관심을 두는 것은 물론 이런 측면이 아니며, 초점은 후술할 ‘이론적 실무(theoretical practice)’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론이란 보든과 켈렐이 기렸던 폭넓은 의미에서의 비판이론임과 동시에, 현대의 ‘문학이론(literary theory)’이나 ‘문화이론(cultural theory)’과도 궤를 같이 한다.¹²⁾ 텍스트를 해석하는 방법론이 문학이론이라는 점, 그리고 문화의 모든 현상을 텍스트로 여기는 현재적 관점을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건축이라는 텍스트, 혹은 문화 현상을 해석하고 비평함에 있어 문학이론이나 문화이론이 도입됨은 자연스런 귀결이며, 학제 간 넘나듦의 전형적 단면이다.

이러한 상황은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을 둘러싼 다른 많은 행위들이 모두 텍스트로서 건축담론에 직접 개입하게 된 최근의 경향과 관계 깊다. 그리고 보니, 조나단 해일(2000)이 지적하듯, 건축 아이디어의 생성 및 전달은 건물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보다도 오히려 다른 간접적 미디어(프로젝트 개요, 평론, 역사서술, 시방서, 도면, 책, 강연, 사진, 방송, 대화 등)에 더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는 장 보드리야르가 걸프전과 관련해 ‘뉴스 이벤트’, 즉 미디어의 역할이 리얼리티보다 더 중요해졌음을 강조했던 것(*The Gulf War Did Not Take Place*, 2007)도 비근한 예로 여긴다.¹³⁾ 근대 건축가들의 글을 모아 묶은 울리히 콘라드의 『Programs and manifestoes on 20th-century architecture』(독문본 1964; 영역본 1970)는 건축의 이해를 위해 건물 못지않게 건축가의 글이 중요함을 보인 선구적 문헌이라 하겠으며, 피터 아이젠만 주도의 뉴욕 ‘건축도시연구소(IAUS, Institute for Architecture and Urban Studies)’가 출판한 저널 『Oppositions』(1973~84)는 당대 첨예한 이론을 생산하고 그 텍스트를 전파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90년대 이래 이와 같은 텍스트의 중요성이 가중되며 다수의 건축이론 선집(選集, anthology)이 출판된다.¹⁴⁾ 그 출발

점인 조안 오크만의 『Architecture Culture 1943-1968: A Documentary Anthology』(1993)는 모더니즘이 포스트모던으로 전이해가는 68혁명 이전 사반세기 동안의 다양한 글들을 연대순으로 수록했다. 이 책의 짙막한 서문에서 버나드 추미는 ‘이론에 근간한 실무’라는 뜻으로 ‘이론적 실무’와 ‘이론적 프로젝트(theoretical project)’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그 같은 작업은 굳이 실현되지 않고 이론적으로만 남더라도 가치 있는 비판적 프로젝트라 주장했다. 추미에게 있어서 현대의 건축가가 비평가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네스빗 역시 『Theorizing a New Agenda for Architecture: An Anthology of Architectural Theory 1965-1995』(1996)의 서문에서 지어지지 않은 ‘페이퍼 아키텍처’의 비판적 능력과 연관시켜 ‘이론적 프로젝트’의 역할에 대해 논한다. 그리고 해일이 마침내 ‘이론적 실무’라는 용어를 『Building Ideas: An Introduction to Architectural Theory』(2000)에 적극 차용했다.¹⁵⁾ 그가 분명히 했듯, 이론적 실무의 역할은 단지 건물 자체를 더 예쁘거나 편리하게 만드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을 담는 사회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비판적 건축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론적 실무의 비판이 노리는 직접적인 대상은 건물이기보다 그 사회와 문화라 하겠다. 예컨대 아이젠만의 주택시리즈가 보여줬던 ‘탈기능주의와 ‘탈인본주의’의 불편함과 난해함은 기존 문화의 보수성에 균열을 내고 그 틈새의 긍정성을 희망하는 비평 행위인 셈이다.

이러한 이론적 실무에 대한 해석학적 방법론은 대체로 전술한 문학/문화이론의 프레임을 의지한다. 특히 니얼 리치의 『Rethinking Architecture: a reader in cultural theory』(1997)가 그러한데, 이는 여러 분야의 인문학 텍스트를 모더니즘, 현상학, 구조주의, 포스트모더니즘, 후기구조주의로 범주화했다. 해일 역시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과 몸의 경험을 강조한 현상학, 이미 존재하는 코드의 네트워크에 개인이 놓인다는 구조주의, 사회 속의 보이지 않는 힘을 간파하고 이를 변화시키려는 마르크스주의로 관점을 정리하고 있다.¹⁶⁾ 이 같은 여러 프레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12) 이 같은 입장에 비해 라파엘 모네오가 현대 건축가들에 대해 말하는 ‘이론적 열망(theoretical anxiety)’은 훨씬 솔직하고 실제적이다. “Theoretical anxiety is a more accurate term than theory.” Rafael Moneo, *Theoretical Anxiety and Design Strategy*, MIT Press, Cambridge MA, 2004, p. 2.

13) 이런 배경 하에, 마르크 프라스카리가 서술하듯, 건물과 드로잉의 재현 관계가 도처되기도 한다. Jonathan Hale, *Building Ideas: An Introduction to Architectural Theory*, Wiley, Chichester, 2000, pp. 1-6.

14) 1990년대의 것만을 예로 든다면 다음과 같다. Joan Ockman (ed), *Architecture Culture 1943-1968: A Documentary Anthology*, Rizzoli, New York, 1993; Kate Nesbitt (ed), *Theorizing A New Agenda For Architecture: An Anthology of Architectural Theory 1965-1995*,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New York, 1996; Charles Jencks and Karl Kropf (ed), *Theories and Manifestoes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Wiley, Chichester, 1997; Neil Leach (ed), *Rethinking Architecture: A reader in cultural theory*,

Routledge, London, 1997; K. Michael Hays (ed), *Architecture Theory since 1968*, MIT Press, Cambridge MA, 1998; & K. Michael Hays (ed), *Oppositions Reader*,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New York, 1998.

15) 이 책은 학생용 건축이론 입문서로서 지금까지의 건축이론 선집과 여타 문헌들을 참터별 참고문헌 목록에 제시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서문의 부제를 ‘Theoretical Practices’로 하여 이론적 실무의 입장을 명확히 한다.

16) 사실 이 두 연구자와 두 저서는 영국 노팅엄대학의 건축 및 비판이론 석사 융합과정(MA in Architecture and Critical Theory)에 중추적이었다.

대개 비평을 통한 사회 변혁을 암묵적으로 의도한다는 점에서 볼 때 상당히 마르크스주의적이다. (프랑크푸르트학파를 포함한 네오마르크스주의의 이론가들이 현 세대에 미친 영향을 생각하면 너무도 당연한 사실일 테다.) 마르크스의 작업은 출발점 자체가 (그간 철학자들이 천착했던) 세계의 해석이 아닌 세계의 변화를 위한 '실천'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천을 통한 변화를 꿈꾸기 위해서는 전술했던 타푸리를 다시 한 번 넘어서야 할 것 같다. 유토피아 없는 '순수 건축 (pure architecture)'의 자율성에 일말의 여지를 남겼다 할지라도 사회질서의 혁명적 변화 없이 건축의 질적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그의 견해는 전술했듯 비판적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건축에서든 사회에서든, 변화에 대한 희망은 가능과 불가능의 여부를 떠난 모든 이들의 존재론적 열망이다. 그러한 실존적 지향을 차단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하겠다. 게다가 그의 논점의 바탕은 이론을 통한 실천, 혹은 이론적 실무가 기대하는 사회의 변화에 오히려 문을 열어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실적 대안이라면, 다소 진부할지 모르나, 프레드릭 제임슨이 제기한 바 있는 '소진지 이론 (enclave theory)'이 거론될 법하며¹⁷⁾ 궁극적으로는 일상의 참여와 맞물리는 풀뿌리 건축 실천으로 귀결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가능성의 까닭에 현실 속에서도 이상을 꿈꾸는 건축가들은 아직도 이론을 통한 혁명적 실천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것이다.

이론-실천의 얽힘 Theory-Practice Intertwined

지금까지 현대건축에서 역사와 실무의 영역이 이론과 교차하는 단면을 나누어 살펴봤지만, 결국 두 카테고리 역시 여러 축에서 얽히고 교차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역사 또한 큰 이론의 범주 내에서의 실천항임을 생각한다면 '이론화된 역사'도 '이론적 실무', 혹은 '이론적 실천'의 영역으로 포섭됨을 쉬이 인지하게 된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 글의 첫머리에서 전제한 이론-실천의 구분과 역사-이론-비평의 구분이 어느 순간부터는 무의미해지며, 모두가 사회를 향한 비평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범위가 한국 건축의 현실로 좁혀지면 여태의 이야기는 무력해지기 십상이다. '작동적 비평'이라 비판할만한 역사와 이론과

비평의 토양조차도 너무 얇기 때문이고, '이론적 실무'를 논하기에는 우리의 실천장이 아직 한참 척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요원한 이야기로 돌리기에선 바깥 동네의 변화가 한 가롭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이론과 실천에도 캐널 보화가 적지 않다. 고로 우리에게 지난(至難)하지만 기꺼운 과제가 주어진 것이 아닌가 싶다. 사실 우리의 현실에 대한 비평은 건축가들보다 역사와 이론의 연구자들을 더 겨누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다. 건축가들은 어찌됐건 건물을 지어오지 않았다. 이런 까닭에 필자는 '비평가들의 두꺼운 해석과 역사가들의 깊은 글쓰기'를 촉구하곤 했다. 나 자신을 향한 박차다.***□

Theory and Practice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Kim, Hyon-Sob / Associate Professor, Korea University

Let's think about the concepts accompanied to theories. We can see them in two categories. First, on the opposite side of theory, there is the concept of 'practice'. Philosophers in ancient Greek used theory and practice early, contrasting 'Theoria (Θεωρία)' and 'Praxis (πρᾶξις)'. Phytagoras was the beginning when he classified the spectators in the games of Olympos higher than the athletes, in B.C. 6 century. Here, the audiences can be compared to thinkers that analyze situations, and 'spectate' is one of the meanings of the hellenic word 'theoria'¹⁾. For spectation, there should be games, and the games were possible based on spectation. Relationship of theory and practice is similar to this. Reflecting an act or phenomena leads to finding out a theory, and we practice according to a certain rule or view, or the theory, whether it's tangible or intangible. It's not different in architecture as well. Second, unlike the contrasting pair of theory and practice, theories in architecture accompany history and criticism in close way usually. They made history-theory-criticism in one group and considered it a big category of theory, and contrasted it against to

17) Fredric Jameson, op cit. 타푸리의 비판론의 대안으로 제임슨이 제안한 이 이론은 '소진지'라 할 수 있는 공산주의 코뮌이 주변으로 영향력을 확대하여 전체를 변혁하는 모델을 지칭한다. 그러나 근대 아방가르드의 실패한 유토피아 프로젝트도 이와 다를 바 없다는 혐의를 받는다.

1) Samuel Enoch Stumpf and James Fieser, *Socrates to Sartre and Beyond: a history of philosophy*, 7th ed, McGraw-Hill, 2003), translated into Korean by Lee Kwang Lae, Open Books, 2004, p. 30.

architectural practice. After Kate Nesbitt (1996) admitted the three areas are overlapped largely, she clarified the differences beyond the common points between them. While traditional history is descriptive about the facts around a phenomenon, theory is ‘prescriptive, proscriptive, affirmative, or critical.’ Meanwhile, criticism is a ‘narrow activity of judgment and interpretation’, based on criteria of a critic.²⁾ In fact, within the big category of theory against practice, we can extract another area of practice. In the definition as above, it is clear that criticism is an activity, or an active practice. Considering that history is also with a ‘doing’ of ‘historiography’, we can say again that criticism belongs to the area of practice. (We should be aware that this is never opposite to Tafuri’s points who criticized and gave warnings about the complicity between history and practice.)

For convenience of the flow of the discussion, let’s refer to history and criticism as a middle concept of history again, which can be regarded as practice within the large category of theory. I would like to overview briefly the roles of theory that is increasingly a major part in the practical and historical areas in the contemporary architecture. Let’s discuss first the history part that might be deemed as granted.

Theorised History

Even considering that the history of architectural history is not so long, it is not so proper to say that the theory of architecture history is introduced just recently. (As David Watkin (1980) showed the conditions from 18th century (birth of architecture history description) to the early 20th century,³⁾ each of the authors had his own positions, and since mid-19th the books of architectural history leaned against the methodologies of art history.) Nevertheless, methodology of history began to be doubted before less half-century, and it’s just for a generation after it became the object of active researches. The trigger of this condition may be the book of Manfredo Tafuri, <Theories and History of Architecture> (1980). As you know, Tafuri criticized ‘operative criticism’ by most of architecture historians, including Sigfried Giedion and Bruno Zevi.⁴⁾ Here,

‘operative’ means an instrumental view to plan history in advance with a purpose. His position which deprived history of myths led to other books after that, became an important foundation of ideological criticism, and have had strong influences until now. <On the Methodology of Architectural History>(1981), edited by Demetri Porphyrios, has an important meaning that it included professional articles of methodologies of 16 art historians and architecture historians, from Hegel’s art history to Tafuri’s position.⁵⁾ Now, the theory of the architecture history, not the history itself, is on the test bed. It was possible on this background that Panayotis Tournikiotis (1999) or Anthony Vidler (2008) could consider earnestly historical descriptions of modern architecture.⁶⁾

Despite the facts, the points that there is no need of theory in architecture history are often claimed. Iain Borden and Jane Rendell (2000) who insisted critical history in which critical theory crossed with architecture history are revealing the extreme opinions (Here, they added to the concept of critical theory all of ‘self-reflexive emancipatory theory’, including feminism, Marxism, and psychoanalysis, beyond the theory of the Frankfurt School, and tried to encompass different theoretical disciplines, including history, culture, geography, and sociology. Meanwhile, in terms of ‘critical history’, they bore in mind Kenneth Frampton who was influenced by the Frankfurt School, but they also points out his exposure of the concept - let the text speak for itself.) It can be an example that in a conference in 1993, Deborah Howard of Cambridge insisted her antiquarian point that good history does not need methodology, or that Gavin Stamp treated post-structuralism leveraged into architecture theory as an irrelevant masturbation.⁷⁾ Even in the general history that seems to be isolated compared to other neighbor disciplines, ‘theory-phobia of historians’ is often strongly argued against.⁸⁾ But, given the current condition that the boundaries of academic disciplines are collapsed, conventional authorities lost its power, and instrumentalised attributes of history are exposed, which is a post-modern

Architecture> translated by Kim Il Hyun, Dongnyok, 2009.

2) Kate Nesbitt (ed), *Theorizing A New Agenda For Architecture: An Anthology of Architectural Theory 1965-1995*,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New York, 1996, pp. 16-17.
 3) David Watkin, *The Rise of Architectural History*, Architectural Press, London, 1980.
 4) The Korean edition translated by Kim Il Hyun translated the words into ‘실무적 비평’, but this paper translated ‘operative’ in to ‘작동적’, to avoid confuse with “실무”, the translated word of ‘practice’. Manfredo Tafuri, <건축의 이론과 역사 (Theory and History of

5) Demetri Porphyrios (ed), *On the Methodology of Architectural History*, Architectural Design, London, 1981.
 6) Panayotis Tournikiotis, *The Historiography of Modern Architecture*, MIT Press, Cambridge MA, 1999; & Anthony Vidler, *Histories of the Immediate Present: Inventing Architectural Modernism*, MIT Press, Cambridge MA, 2008.
 7) Iain Borden and Jane Rendell, 'From chamber to transformer: epistemological challenges and tendencies in the intersection of architectural histories and critical theories', in Borden and Rendell ed), *InterSections: Architectural Histories and Critical Theories*, Routledge, London, 2000, pp. 3-23.
 8) Keith Jenkins, *Re-thinking History*, Routledge, London, 1991), translated into Korean by Choi Yong Chan, Hyeon, 1999, p. 155.

situation, it could be out-of-dated and powerless struggle to build a fortress around the boundary of architecture history and try to prevent intervention of theories. Like Hegel's words, if every person includes philosophy,⁹⁾ though they are not aware of it, there is no need to add more words about historians' noble works. Keith Jenkins (1990) claims that 'all history is theoretical'.¹⁰⁾ It doesn't mean that all historians are equipped with the newest theories. The matter is for a historian to identify his theoretical position and to recognise influences of it on society and history. Back to the point of Borden and Rendell. 'A critical, theorised architectural history' suggested by them shares 'the intensity of intellectual energy and concern for the provisional nature of historical knowledge' of dialectical history of Tafuri,¹¹⁾ but also it hopes possibility of revolution of human's abundant creativity, instead of his pessimistic view. Therefore, this history is a form of criticism as well.

Theoretical Practice

We looked the conditions of theorised history first, but it seems that the phrase 'practice is theoretical' presents stronger point, than the phrase 'history is theoretical'. As mentioned in the introduction, it's because it feels like the distance between practice-theory is far longer than between history-theory. When it comes to the theory relevant to practice, we can come up with the things on the practical level, including planning items, laws, structure, or installation. It can be called 'practical theory'. But, what we are interested in here is not on this level, of course, and the focus is on 'theoretical practice' to follow. The theory discussed here is the extensive critical theory that Borden and Rendell relied on, and also shares the traces with current literary theory or cultural theory.¹²⁾ Let's think of that the methodology to interpret texts is literary theory, and the current view that consider texts all of the cultural conditions. Then, in interpreting and criticising the texts of architecture or cultural phenomenon, introduction of literary or cultural theory is a natural result, and it's also a typical aspect of cross-disciplines.

This situation is highly relevant to the current trends which many other different activities around a building as well as the building itself intervene directly as texts into the discourses of architecture. As Jonathan Hale (2000) pointed out, it is true that generation and deliverance of architectural ideas rely on other indirect media (project description, criticism, history writing, specifications, drawings, books, lectures, photos, broadcasts, or conversation, etc.), rather than on direct experiences. He considered as a close example that Jean Baudrillard pointed in relation to the Gulf War that 'news events', or the role of media became more important than the reality (*The Gulf War Did Not Take Place*, 2007).¹³⁾ <Programs and manifestoes on 20th-century architecture> by Ulrich Conrads, which collected modern architects' writings, is an advanced literature to demonstrate importance of architects' texts comparable to their buildings (1964 in German: 1970 in English). <Oppositions>(1973-1984), the journal published by IAUS led by Peter Eisenman, played important roles to generate edged theories and distribute the texts. Since 1990s, as the importance of those texts was increased, a lot of anthologies of architectural theories were published.¹⁴⁾ <Architecture Culture 1943-1968: A Documentary Anthology>(1993) by Joan Ockman as the starting point contained different articles for 25 years before 68 revolution when modernism was transformed into post-modernism. In the brief introduction of the book, Bernard Tschumi used the words 'theoretical practice' and 'theoretical project' as the meaning of 'a practice grounded in theory', and he suggested that that kind of work is valuable critical project even if not realized but just left as a theory. For Tschumi, it is impossible for a contemporary architect not to act as a critic. Nesbitt also discusses the role of 'theoretical project', connecting it to critical ability of un-built 'paper architecture', in the introduction of <Theorizing a New Agenda for Architecture: An Anthology of Architectural Theory, 1965-1995>(1996). At last, Hale leveraged actively the term 'theoretical practice' in <Building Ideas: An Introduction to Architectural

9) G.W.F. Hegel, *Hegel's Aesthetics: A Critical Exposition*, trans. J.S. Kedney, Chicago, 1885, pp. 163-164.

10) Op. cit. p. 188.

11) Borden and Rendell referred to Frederic Jameson about the concepts and the term of 'dialectical history' of Tafuri. Frederic Jameson, 'Architecture and the Critique of Ideology', in Joan Ockman (ed), *Architecture Criticism Ideology*,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Princeton, 1985, pp. 51-87.

12) "Theoretical anxiety is a more accurate term than theory." Rafael Moneo, *Theoretical Anxiety and Design Strategy*, MIT Press, Cambridge MA, 2004, p. 2.

13) On this background, as Marco Frascari described, the representing relationship of a building and its drawing is sometimes inverted. Jonathan Hale, *Building Ideas: An Introduction to Architectural Theory*, Wiley, Chichester, 2000, pp. 1-6.

14) Examples from only 1990s: Joan Ockman (ed), *Architecture Culture 1943-1968: A Documentary Anthology*, Rizzoli, New York, 1993; Kate Nesbitt (ed), *Theorizing A New Agenda For Architecture: An Anthology of Architectural Theory 1965-1995*,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New York, 1996; Charles Jencks and Karl Kropf (ed), *Theories and Manifestoes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Wiley, Chichester, 1997; Neil Leach (ed), *Rethinking Architecture: A reader in cultural theory*, Routledge, London, 1997; K. Michael Hays (ed), *Architecture Theory since 1968*, MIT Press, Cambridge MA, 1998; & K. Michael Hays (ed), *Oppositions Reader*,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New York, 1998.

Theory> (2000).¹⁵⁾ As he mentioned clearly, the role of theoretical practice is not in making a building more beautiful and convenient, but in generating an environment to allow critical architecture by influencing society containing architecture. Again, the direct target for the criticisms of theoretical practices is its society and culture, rather than buildings. For example, the inconvenience and abstruseness of ‘post-functionalism’ and ‘post-humanism’ that were seen in the series of houses by Eisenman were critical activities that made cracks in conventional conservatism and expected positivity in the niches breaks.

These hermeneutical methodologies about theoretical practices rely largely on the frames of literary/cultural theories described above. Especially, <Rethinking Architecture: a reader in cultural theory>(1997) by Neil Leach categorised various texts from different areas into modernism, phenomenology, structuralism, post-modernism, and post-structuralism. Hale clarifies his points as phenomenology (emphasises inter-subjectivity and bodily experiences) structuralism (places individual on the existing coded network), and Marxism (tries to identify invisible power in society and change it).¹⁶⁾ Despite these several frames, they are significantly of Marxism, in terms of that they usually aim implicitly for social revolution with criticism (it is very reasonable truths, given the influences by Neo-Marxist theorists including Frankfurt school philosophers on the current age). We know that the starting point of Marx’s works is in ‘practices’ for changing the world, not in interpretation of the world (that philosophers had stuck to until then). However, to dream changes through practices, we may have to be beyond again Tafuri described above. Even though he left some room for possibility in autonomy of ‘pure architecture’ without utopia, his point is pessimistic one that we cannot expect qualitative improvements of architecture without revolutionary changes of social orders. But, fundamentally, hope of changes are ontological desires of every people, whether of architecture or of society, regardless possible or not. We might have to say that there is no reason in anywhere to prohibit the existential orientations. In addition, the base of his point seems to open a door toward social changes expected by practices through theories, or theoretical practices. If there is any practical alternative,

even sounds some typical, ‘enclave theory’ that has been proposed by Frederic Jameson may be referred to¹⁷⁾ , and ultimately it results in grass-rooted architectural practices connected with participations in every day lives. Because of these possibilities, idealistic architects dreaming in reality cannot leave off the strings of hope for revolutionary practices through theories.

Theory-Practice Intertwined

We have examined the crossed sections of theories with practice and history until now, but in the end we know that two categories are also crossed and winded on several axes. Further, considering history is also a term of practice within the category of theory, we can easily realise that ‘theorised history’ is integrated into the area of ‘theoretical practice’. And, substantially, the divisions of theory-practice and history-theory-criticism, which are premised in the first paragraph in this article, are meaningless after a certain point, and everyone has a role of criticism toward society. Nevertheless, when the scope of discussion narrows to the reality of architecture in Korea, what we have talked until now is easily to lose its power. Because even the basic ground of history, theory, and criticism that might be criticised as ‘operative criticism’ is too shallow, and our filed of practice is too poor to discuss ‘theoretical practices’. But the changes of outsides don’t seem to allow much time to us, so we cannot leave it as the issue of the distant future. And, with more active eyes, we can excavate not a few valuables in our theory and practice. Therefore, I think that we are given so difficult but pleasant tasks. In fact, it is correct to say that our criticisms about our reality are aiming to researchers of history and theory, rather than to architects. Architects have realised their buildings so far, in any way. Because of that, I, the author, have urged from time to time ‘critics’ thick interpretation and historians’ deep writing’. It is also a spur to myself.☐

15) This book is an introductory one for architecture students. It has the merits to list anthologies of architecture theories and other literatures in reference pages of every chapter. Also, it shows clearly its argument by naming the subtitle of the introduction 'Theoretical Practices'.

16) In fact, these two scholars and their two books were key stones in the course of MA in Architecture and Critical Theory, in Nottingham University, UK.

17) Fredric Jameson, op cit. This theory proposed by Jameson as an alternative to pessimism of Tafuri refers a model to change the whole by expansion of Communes that can be called 'enclave' toward surroundings. But, the failed utopia project of modern avant-gardes are also suspected to be almost the same to this.